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김주현 안토니오, 이연주 안젤라
다음주 독서: 심윤필 베르나르도, 황권희 클라라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보미 로사
다음주 미사해설: 김대진 하상바오로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 헌 금: \$ 346
교 무 금: \$ 500
2 차헌금: \$ 125
합 계: \$ 971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토요 교리모임	격주 토요일 4 시 성당 지하 친교실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오늘의 묵상

어릴 적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은 늘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무한한 거리에서 빛을 밝히는 별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영원성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거꾸로 지구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은 그야말로 한 점 푸른빛을 내는 작은 별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는 것은 마치 탁상 위에 작은 지구본을 올려놓고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사는 사람을 관찰하려면 다시 수십억 배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보아야만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키 재기를 하며 사는 세상이지만, 사실 먼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는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관찰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생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저 멀리 우주에서 바라보면 한 점 별이지만, 다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지구는 하늘의 한 중심에 있게 됩니다. 지구 위에 사는 사람도 광활한 우주 저 멀리에서 보면 존재 자체마저 가늠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반대로 지구의 한 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온 하늘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감싸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주 저 멀리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온 우주를 품고 섭리하시는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점 작은 별에 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지만, 하늘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다시 우리는 온 하늘을 품고 사는 가장 큰 존재가 됩니다. 주님 승천의 의미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주님 승천 대축일]

2011 년 6 월 5 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1, 1-11

<제 2 독서> 에페소서, 1, 17-23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28, 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야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41 봉헌: 511 성체: 496 파견: 140



생명의 말씀

하늘은 어디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사도 1,9)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아니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 하늘이 무엇일까?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 땅에 서 있는 사람한테 하늘은 머리 위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마침내 아래에도 있는 것이다. 지구가 둥글다면 하늘은 땅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다… 하늘은 어떤 형체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건 아니다.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있는 것, 하늘은 그런 것이다.”

하늘에 대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앞에 뒤에 위에 아래에 좌우에 온 세상 가득 찬 모든 것의 안팎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주선처럼 우주 하늘 위로 날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머리 위 저 꼭대기 어딘가로 공간적인 장소를 이동하여 올라가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늘은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때와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본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마르 16,19)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오르셨던 하늘, 그 하늘나라 역시 어떤 장소나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는 피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현실과 연결된 아주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실천되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으며 그곳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지사항

- 그동안 회계 담당으로 수고해 주신 김지영 자매님이 곧 떠나셔서, 구역 담당이었던 유현영 형제님이 회계 담당 사목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담당은 일단 부회장님이신 김주현 형제님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클릭! 교리

‘성경’과 ‘성전’의 차이는?

성경(聖經)이 하느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라면 성전(聖傳)은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지 않는 채 구전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예수님은 신약성경 중 단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당신 친히 말씀과 행적을 통해 복음(福音),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자, 그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글로 기록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초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51년 경에 쓰여진 데살로니카 전서이며,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 70년 경에 쓰여진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성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서로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의 바탕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즉, 기록한 전통은 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진리 또는 성서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연옥교리, 유아 세례의 전통,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습니다”(1 코린 15,3-4).